

자 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 자료

남 동 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金石清玩」 연구 (2012), 「李穡의 高麗大藏經 印出과 奉安」
(2013), 「芬皇寺의 창건과 그 역사」 (2013), 「天宮으로서의 석굴암」 (2014) 등.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 자료*

南東信

I.

천년 고찰 佛國寺는 20세기 초의 ‘근대적 재발견’ 이래 한국 전통 문화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마침내 1995년 석굴암과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불국사는 일국사가 아니라 인류사적 차원에서 그 현상을 보존하고 원형을 탐구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불국사의 현재 모습은 1969년에서 1973년에 걸쳐 박정희정부가 단행한 복원 사업의 산물이다. 현재 모습이 8세기 중엽 창건 당시의 원형이 아닌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지만, 원형에서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하여는 답하기 쉽지 않다. 천여 년의 시간과 비바람에 서서히 노후화하였고, 자연재해나 잦은 전란으로 인한 파괴적인 손상을 술하게 입었다. 심지어 후대의 ‘복원’ 내지 ‘중수’조차 변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20세기 들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는 두 차례 있었는데, 그나마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복원 사업은 상세한 보고서를 남겼기에 ‘복원’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24년 경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改修 공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국사의 근대적 변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고고 미술 자료와 더불어 불국사 연구에 필수적인 문자자료는, 불국사의 유구한 역사와 최고의寺格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이 소략할 뿐 아니라 통일신라로 소급하는 1차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부록 참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고려 顯宗 때 작성된 『중수문서』가 최근에 극적으로 발굴되었듯이, 기왕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자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불교계는 물

* 귀중한 탁본 자료를 조사할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준 송지형 학예연구사(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와, 미완의 1차 판독문을 완성시켜준 양진석 학예연구관(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리고 초벌 번역문을 꼼꼼하게 다듬어준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¹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慶州市, 1976).

론 학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

필자는 최근 서울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리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탁본을 조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탁본을 몇 점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이하 고문헌실)이 소장하고 있는 「佛國寺復役功德記」 탁본이다 도 1. 여기서는 자료 해제와 아울러 판독문과 도 2 역주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선 후기 불국사 연구 및 또 다른 관련 자료의 발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1) 개관

현재 고문헌실이 「佛國寺重修記」(청구기호 枚 4016 99)라는 이름으로 소장하고 있는 「佛國寺復役功德記」 탁본은, 기록에 따르면, 경성제대 도서관이 1933년 7월 5일 朴駿和씨로부터 1엔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² 고문헌실에는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박준화씨로부터 구입한 탁본이 다수 있는데, 박준화란 인물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탁본지는 흰색 한지이며 배접만 한 채 말아서 보관하고 있다. 탁본지 오른쪽 귀퉁이에는 3cm 3cm 크기의 주문방인이 찍혀 있는데, 양각된 3행×3자의 전서체 글자는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다. 본 탁본의 경우 나뭇결이 도드라진 반면 일부 글자가 흐릿하여 편액에 글자를 새긴 후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탁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모든 글자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탁본 상태는 양호하다.

탁본의 크기는 세로 34.1cm, 가로 139cm이므로 목조 현판도 이 정도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각한 글씨는 해서, 행서, 초서가 섞여 있다. 전체 50행인 바, 제 1행은 기문의 제목이며, 제 2행부터 제 37행까지는 復役 내용을 기록한 본문으로서 글자수는 한 행에 14~19자로 일정치 않다. 제 38행은 문장을 찬술한 날짜와 撰者를 기록하였는데, 첫 글자가 임금[正祖]을 가리키는 ‘上’자여서 한 글자 올려 쓰기를 하였다. 撰者 옆의 書者 부분은 현판 전체를 새기고 난 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 39행부터 제 50행까지는 扶助秩序로서 경상도 관찰사 이하 관내 읍과 사찰들이 出捐한 금액을 鎰 단위로 기록하였다.

이 탁본은 필자가 아는 한 유일본일 뿐 아니라, 그 판독문조차 이전에 소개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원 자료인 「佛國寺復役功德記」 현판자체의 행방도 묘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文明大 교수의 증언은 주목할 만하다. 즉,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에 수록된 「佛國寺大雄殿重創丹牘記」(이하 대웅전증창기)와 「佛國寺紫霞門重創記」(자하문증창기)는 1968년 8월 신라오악조사의 일환으로

²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圖書受入原簿』, p. 122.



도 1. 「佛國寺徵役功徳記」(1779년) 탁본 전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소장

1	佛國寺復役功德記
2	佛國寺之捌殆數千載矣其橋臺塔
3	宇之飾以東方勝觀名非獨爲伽藍
4	第一焉及其久而不能逃盛衰興廢之
5	數橋臺荒而棟宇頽僧遂去其寺而
6	散者有年過者莫不咨嗟夫寺刹何
7	與於世教而吾黨之好古訪奇者亦多興
8	感於此也草之秋蘭木之古松老梅雖
9	無當於世用不去于漂折人皆嗟惜知此則
10	知此寺之衰廢爲可惜也況其徒之心哉其
11	徒有贊弘永守者慨然有興捌之志與餘
12	僧之未忍舍去者謀不憚重繭不避風雨
13	或呼訴公門或往諭諸刹靡不用極天龍
14	山人極佑實共其事居無何贊弘來余請
15	曰寺今復矣荒者理頽者修散者集殆前
16	日如矣其闕寺運不細得佛力非偶蓋爲我
17	叙其蹟余勞之曰諺云一人興家宜子之
18	興佛家也弘曰不然捐繒錢以助之剛流散
19	以還之又使管內諸刹各效其力巡相李公
20	在簡也承李相公之意指授凡百伎卒有成
21	府尹金相公尙集也周旋二公之間使之至此
22	前討捕使柳公爾胃也寺旣復李相公燭
23	營役金相公燭府役兵相李公文德亦許
24	燭役皆留券以圖永可謂靡願不遂矣況節
25	度公下車屬耳汲汲然爲此寺地不後於二相
26	公非廉惠君子何能如此我西方世尊坐九
27	品蓮花上下視東方佛國衰且廢誘諸公之
28	衷使得有今日諸公分受用於吾世尊甚大
29	余聞而歎曰贊弘浮屠也其爲此寺竭力固
30	也而諸公之用心如此之勤何哉蓋以其千載
31	名利而不忍其一朝廢者仁人君子之心也君子
32	之於物無所不包觀夫李公治全嶺金公治一
33	州適值殺歲使殘氓得免溝壑而柳公叅
34	李公募與有力焉其功其德固已記之今碑矣
35	其推而廣之也則使此象外衰廢之物回盛而
36	復興此其可記也夫節度公亦治尙寬仁得軍
37	民心甚有名稱焉
38	上之三年己亥採椒月活山少隱 李南景義 祖義 洙記
39	巡使道帖下錢文壹百拾兩
40	道內各鎮各刹扶助秩
41	慶州鎮八邑各寺錢文肆百伍拾兩
42	尙州鎮各邑各寺錢文貳拾伍兩
43	安東鎮各邑各寺錢文肆拾伍兩
44	晉州鎮各邑各寺錢文肆拾貳兩
45	大邱鎮各邑各寺錢文參拾伍兩
46	金海鎮各邑各寺錢文貳拾壹兩
47	柒谷鎮各邑各寺錢文拾捌兩
48	星州鎮各邑各寺錢文拾參兩
49	東萊鎮各邑各寺錢文拾二兩
50	善山鎮各寺錢文伍兩

토함산지구를 조사할 때 탁본한 것인 바, 당시 자하문 벽에는 이들 외에 세 개의 현판이 더 있었으나, 보고서에 실기 위하여 앞의 두 현판에 대한 해제를 쓸 당시에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³ 만약 이번에 탁본이 발견된 『佛國寺復役功德記』가 1968년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세 개의 현판 가운데 하나라면, 향후 어디에선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기문의 찬자 南景義(1748~1812)는 조선 후기 경주에서 활동한 문인으로, 본관은 英陽이며, 자는 仲殷, 호는 癡菴이라 하였다. 할아버지는 國先, 아버지는 龍萬(1709~1784)이며, 어머니는 花溪 柳宜健(1687~1760)의 딸이다. 남경희는 8세 때 『十九史略』을 평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으며, 大山 李象靖(1711~1781)에게 배웠다. 그는 1777년(정조 원년) 增廣試와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博士, 成均館典籍, 司憲府監察, 兵曹佐郎을 역임하였지만, 司諫院正言을 끝으로 1791년 사직하고 고향인 경주 보문리로 퇴거하였다. 이후 影湖[지금의 경주시 암곡동]에 止淵溪堂을 지어 학생을 가르치거나 봄·가을로 벗들과 講會를 열며 안빈낙도의 삶을 보냈다. 癡菴은 자신의 가난도 어찌지 못하면서 世道를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지은 자호라고 전한다. 李萬運을 비롯하여 李基慶·李堦·韓致應 등과 교유하였으며, 평소 『近思錄』과 『孟子疑難』을 즐겨 읽었다. 저서로는 아들 南驥陽이 1860년(철종 11)에 편집 간행한 『癡菴集』 12권 6책이 있다. 이 문집에 「불국사복역공덕기」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석굴암 관련하여 「雨中宿石窟」과 「石窟」 두 편의 시가 전한다.⁴ 기문을 찬술할 당시의 남경희는 32세의 낙향 문인이다. 공교롭게도 남경희의 아버지와 장인 및 스승 모두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노론이 독주하는 중앙 관계에 남지 않고 낙향하여 학문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주목할 사람은 아버지 남용만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현판 가운데 1767(영조 43)년 6월에 씌어진 「대웅전중창기」의 찬자는, 실명 대신 「活山病叟(살아있는 산의 병든 늙은이)」라 하여 다소 역설적이면서 우울한 표현 속에 자신을 숨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익명의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佛國寺復役功德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活山이 경주의 明活山을 가리킨다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793년에 간행된 남용만의 문집 『活山集』 권5에 수록된 「佛國寺重粧丹雘記」의 내용이 「대웅전중창기」와 동일함을 확인함으로써, 미지의 인물 「活山病叟」가 南景義의 아버지 南龍萬임이 분명해졌다. 그 역시 1756년(영조 32) 生員試에 붙었으나 일찍이 벼슬길을 단념하고 향리인 경주에서 학문 활동에 매진하였다. 공교롭게도 대

³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慶州市, 1976), p. 266, 附錄 2. 佛國寺大雄殿 및 紫霞門重砌記(懸板) 解題[작정자 文明大].

⁴ 『癡庵集』 권1 「雨中宿石窟」, “風雨東山路, 依投賴有庵, 隨人雲在戶, 藏佛石爲龕, 俗客無來往, 居僧只兩三, 欲眠還苦蝸, 不妨聽禪談.”; 권1 「石窟與從兄仲瞻景樞·崔卿玉·元宜伯同賦」, “山角徐羅窟, 秋荒劫後塵, 含風蒼壁瘦, 滲雨紫苔新. 寂寞觀音佛, 奔忙乞福人, 吾儕緣賞物, 聯袂及青春.” 『癡庵集』 권1에는 남경희가 경주 토함산 일대의 산천과 명승을 둘러보고 지은 시들이 실려 있는데, 그가 詩題에서 ‘石窟’과 ‘骨窟’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石窟’을 석굴암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시의 내용을 보면, 그가 말하는 ‘석굴’은 석굴과 요사채[석굴암]를 포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웅전 중창 佛事の 都化土로 등장하는 道泰와 贊弘은 사제지간이며, 찬홍은 바로 「불국사복역공덕기」의 주인공 찬홍과 동일 인물이다.

2) 판독문

佛國寺復役功德記

佛國寺之剎, 殆數千載矣. 其橋臺塔宇之飾, 以東方勝觀, 名非獨爲伽藍第一焉, 及其久, 而不能逃盛衰興廢之數. 橋臺荒, 而棟宇頽, 僧遂去其寺, 而散者有年, 過者莫不咨嗟. 夫刹刹何與於世教, 而吾黨之好古訪奇者, 亦多興感於此也. 草之秋蘭, 木之古松·老梅, 雖無當於世用, 不去于漂折, 人皆嗟惜, 知此則, 知此寺之衰廢爲可惜也. 況其徒之心哉!

其徒有贊弘·永守者, 慨然有興剎之志, 與餘僧之未忍舍去者, 謀不憚重繭, 不避風雨, 或呼訴公門, 或往諭諸刹, 靡不用極, 天龍山人極佑, 實共其事. 居無何, 贊弘來余請曰, “寺今復矣, 荒者理, 頽者修, 散者集, 殆前日如矣. 其關寺運不細, 得佛力非偶, 盍爲我叙其蹟?” 余勞之曰, “諺云, 一人興家, 宜子之興佛家也.” 弘曰, “不然. 捐縑錢以助之, 刷流散以還之, 又使管内諸刹, 各效其力, 巡相李公在簡也. 承李相公之意, 指援凡百伎卒有成, 府尹金相公尙集也. 周旋二公之間, 使之至此, 前討捕使柳公爾胄也. 寺旣復, 李相公蠲營役, 金相公蠲府役, 兵相李公文德亦許蠲役, 皆留券以圖永, 可謂靡願不遂矣. 況節度公下車屬耳, 汲汲然, 爲此寺地, 不後於二相公, 非廉惠君子, 何能如此. 我西方世尊, 坐九品蓮花上, 下視東方佛國衰且廢, 誘諸公之衷, 使得有今日, 諸公分受用於吾世尊甚大.” 余聞而歎曰, “贊弘浮屠也, 其爲此寺竭力固也, 而諸公之用心, 如此之勤何哉. 盖以其千載名利, 而不忍其一朝廢者, 仁人君子之心也. 君子之於物, 無所不包. 觀夫李公治全嶺, 金公治一州, 適值殺歲, 使殘氓得免溝壑, 而柳公祭李公墓, 與有力焉. 其功其德, 固已記之. 今碑矣, 其推而廣之也, 則使此象外衰廢之物, 回盛而復興, 此其可記也. 夫節度公亦治尙寬仁, 得軍民心, 甚有名稱焉.

上之三年己亥 採椒月 活山少隱 南景義記

李祖洙書

巡使道帖下錢文壹百拾兩

道內各鎮各刹扶助秩

慶州鎮各邑各寺錢文肆百伍拾兩

尙州鎮各邑各寺錢文貳拾伍兩

安東鎮各邑各寺錢文肆拾伍兩

晉州鎮各邑各寺錢文肆拾貳兩

大邱鎮各邑各寺錢文參拾伍兩

金海鎮各邑各寺錢文貳拾壹兩

柒谷鎮各邑各寺錢文拾捌兩

星州鎮各邑各寺錢文拾參兩

東萊鎮各邑各寺錢文拾二兩

善山鎮各寺錢文伍兩

3) 역주문

불국사복역공덕기

불국사가 창건된 지 거의 천 년을 헤아린다. 그 橋臺와 塔宇의 꾸밈새는 동방의 뛰어난 불거리로 명성이 가람 중에서 으뜸일 뿐 아니라 오래됨에 미쳐서, 성쇠와 흥폐의 운수를 피할 수가 없었다. 橋臺는 황폐해지고 건물은 무너졌으며, 승려가 마침내 절을 떠나서 흩어진 지 여러 해가 되니, 지나는 이가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무릇 사찰이 어찌 世敎에 관여할까마는, 우리 무리 가운데 옛 것을 좋아하고 기이한 곳을 탐방하는 자들 또한 여기에서 많이들 흥취를 느낀다. 풀 중의 가을 난, 나무 중의 古松과 老梅는 비록 세상에 쓰임새가 없음에도, 이래저래 꺾임을 면치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아까워한다. 이를 안다면 이 절의 衰廢를 애석히 여길 만함도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그 무리의 심정임에랴.

그 무리 중에 贊弘과 永守란 자가 개탄하며 중창할 뜻이 있어서 아직 차마 절을 버리고 떠나지 않은 남은 승려들과 더불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비바람을 피하지 않기를 도모하였다. 혹은 官家에 호소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절에 가서 설득하기를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天龍과 山人이 극진히 도와서 실로 그 일을 함께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찬홍이 내게 와서 청하기를, “절이 이제 복구되었습니다. 거칠어진 것은 다듬었고 무너진 것은 수선하였으며,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거의 전날과 같아졌습니다. 절에 관한 운수가 작지 아니하며, 佛力을 얻은 것이 짝할 바가 없습니다. 어찌 저희를 위하여 그 자취를 써 주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위로하며 말하기를, “속담에, ‘한 사람이 집을 일으킨다.’ 하더니, 응당 그대가 佛家를 일으켰습니다.” 하였다.

찬홍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돈꺄미를 출연해서 일을 돕고, 흩어진 이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고, 또한 관내의 여러 절로 하여금 각각 그 힘을 다하게 한 이는 巡相⁵ 李在簡公⁶입니다.

⁵ 巡相: 순찰사. 조선 시대 임금의 명을 받고 使臣으로 나가는 宰相의 從二品 벼슬. 여기서는 경상도 순찰사를 가리킴.

⁶ 李在簡: 1733-178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龍仁, 자는 汝聘, 할아버지는 普赫, 아버지는 重祐, 어머니는 趙迪命의 딸. 1759년(영조 35) 通德郎으로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내외의 관직을 차례로 역임하는 도중 여러 차례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다. 영조 말 일시 면직되었지만 정조 즉위 후 이조참판이 되었다. 그리고 1778년(정조 2) 경상도감사로 파견되어 불국사 복역을 후원하였다. 마침내 1789년 冤言事件에 연루되어 진도로 유배가서 반역죄로 처형당하였다.

李相公의 뜻을 이어서 온갖 기술자를 지휘하여 도와서 완성시킨 이는 府尹⁷ 金尙集⁸입니다. 두 분 사이에서 주선하며 여기에 이르게 한 이는 前 토포사⁹ 柳爾曹公¹⁰입니다. 절이 이미 복구되자 이상공께서는 營役을 덜어주었으며, 김상공께서는 府役을 덜어주었으며, 兵相¹¹ 李文德公¹²께서 또한 役을 덜어줄 것을 허락하시되, 모두 문서[券]를 남겨서 영원하도록 도모하였으니,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고 이를 만합니다. 하물며 節度公[이문덕]께서는 부임하여 듣자마자 서둘러 이 절땅을 위함이 두 상공에 뒤지지 않았으니, 청렴하고 은혜로운 군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방세존¹³께서 九品蓮花¹⁴ 위에 앉아 동쪽의 佛國(寺)가 衰廢해진 것을 굽어보시고 諸公들의 정성을 유도하여 오늘이 있게 하였으니, 제공들이 우리 세존께 나누어 받아 쓰임이 매우 컸습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탄복하여 말하기를, “찬홍 스님께서 이 절을 위하여 진실로 힘을 다 쏟았으며, 제공들이 마음 쓰기를 이처럼 부지런히 한 것이 그 얼마입니까! 대개 천년 명찰을 차마 하루 아침에 폐지할 수 없음은 어진 군자의 마음이니, 군자는 만물에 대하여 포용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보건대 무릇 李公[이재간]께서 영남 전체를 다스리고 金公께서 한 고을[경주]을 다스림에 때 마침 큰 흉년¹⁵을 만나 피폐한 백성들로 하여금 죽어서 구렁텅이에 던져짐을 면하게 하였으며, 柳公께서는 이공[이문덕]의 막부에 참여하여 힘을 썼습니다. 그 공과 그 덕은 이미 기록하였으며, 이번 碑는 (그것을) 미루어 넓히는 것입니다. 곧 이 형상 밖의 쇠퇴한 물건으로 하여금 다시 번성하고 부흥케 하였으니, 이는 기록할 만합니다. 무릇 절도공께서 또한 다스림에 너그롭고 어짊을 숭상하여 軍民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칭송이 자자합니다.” 하였다.

임금[정조]께서 즉위하신 지 3년째인 己亥(1779)년 산초 따는 절기[가을]에 活山¹⁶의 젊은 은

7 府尹: 조선 시대의 지방 관아인 府의 수장. 종2품 문관의 외관직으로 영흥부, 평양부, 의주부, 전주부 그리고 경주부의 다섯 곳에 두었다. 여기서는 경주부윤을 가리킴.

8 金尙集: 172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江陵, 자는 士能. 아버지는 始錫이며, 침지중추부사 始煥에게 입양되었다. 1755년(영조 31)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史官을 거쳐 正言로 있을 때 景賢堂의 문신 제술에서 장원하였다. 1763년 경기도와 강원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을 때는, 영호남의 곡식을 옮겨서 강원도 여섯 읍의 백성을 진휼하였다. 1773년 대사간을 역임하였으며, 기존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국사북역공덕기」는 그가 1779년 무렵 경주부윤을 지낸 사실을 증언한다. 1784년(정조 8)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청나라에 사행을 다녀왔다. 그후 대사헌과 형조판서를 거쳐, 1787년 경상도관찰사 있을 때 火田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되기도 하였다. 밀양 표충사에 현재 목판으로 전해지는 『表忠寺題詠錄』은 이 무렵 그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9 討捕使: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鎭營將에게 겸임시킨 특수 관직.

10 柳爾曹: 1726-1797, 자세한 생애는 미상. 영조 때 평북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1 兵相: 여기서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가리킴.

12 李文德: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全州, 세종의 9남 和義君 李璵의 후손. 증조부는 左贊成에 추증된 李漢珪. 무과에 급제. 1779년 무렵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할 때, 불국사북역을 후원하였다.

13 西方世尊: 서방 극락정토를 주재하는 阿彌陀佛[無量壽佛]을 가리킴.

14 九品蓮花: 上品上生부터 下品下生까지 9품으로 이루어진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날 때에는 蓮花에서 化生함. 여기서는 아미타불이 앉은 蓮花臺座를 가리킴.

15 殺歲: 큰 흉년.

16 活山: 慶州 明活山.

자 南景義가 적고, 李祖洙¹⁷가 쓰다.

순사또[관찰사 이재간]의 체하[帖下] 錢文 110냥

도내 각 진과 각 사찰의 扶助秩

경주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450냥

상주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25냥

안동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45냥

진주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42냥

대구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35냥

김해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21냥

칠곡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18냥

성주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13냥

동래진 각 읍과 각 사찰의 전문 12냥

선산진 각 사찰의 전문 5냥

Ⅲ.

지금까지 불국사 관련하여 새로 발견된 「佛國寺復役功德記」(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탁본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제 이 자료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佛國寺復役功德記」 탁본 1점은 1779년에 있었던 불국사 중창 불사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료이다. 원 자료인 현판 자체는 물론 사진이나 또 다른 탁본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으며, 그 내용 또한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탁본은 1779년의 불국사 중창 불사를 파악하는데 거의 유일한 사료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불국사 극락전 기단의 동남쪽 우주석에 새겨진 “迴蓋石栴學輝 己亥(돌개석탄학휘 기해)”는 주목할 만하다. 이 명문의 연대와 내용에 대하여 기왕에는 알 수 없었는데, 이제 복역공덕기에 의하여 1779년에 학휘가 극락전 기단을 중수하였음이 분명해졌다. 학휘는 1742년 밀양 표충사에 건립된 「西山大師碑」에 등장하는 학휘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도 3. 불국사 극락전 기단 동남쪽 우주석의 己亥銘

¹⁷ 李祖洙: 미상.

둘째, 중창 불사의 주체와 불사의 대체적인 윤곽, 후원자들, 지역[鎭] 단위의 출연과 그 액수 등에 대하여 정보를 담고 있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파괴된 경주 지역의 사찰이 재건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佛國寺復役功德記』와 『佛國寺大雄殿重創丹牘記』에는 18세기 중후반 일련의 불국사 중창 불사를 주도한 불국사 승려들과, 중앙에서 경상도 또는 경주에 파견된 지방관들, 그리고 중앙에서의 관직 대신 향리에서의 학문과 교육에 전념한 儒者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는 단순히 양란으로 파괴된 사찰의 복원에 그치지 않는다. 조선 사회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지방 사찰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탁본 자료는 조선 후기 불교사 내지 지방사 연구에 흥미롭고도 참신한 관점을 갖도록 한다.

〈부록〉 불국사 관련 문자 자료 일람

	명 칭	내 용	찬술 시기	찬자·서자	비 고
1	重修文書	①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	1024년 3월	미상	* 문서 현존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pp. 50-89(판독 및 역주).
		②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1038년 정월	미상	
		③ 佛國寺塔重修布施名 公衆僧小名記	1038년 정월	미상	
2	佛國寺事蹟	① 新羅國東吐含山華嚴宗 佛國寺事蹟	1046년 2월	一然 撰	『佛國寺誌(外)』, pp. 1-40, 『佛國寺 復元工事 報告書』, pp. 262-265.
			1708년 8월 改刊	繼天 書 載肅 校正	
		② 毘盧佛并二菩薩像讚 并序		崔致遠 撰	
		③ 阿彌陀佛像讚 并序		崔致遠 撰	
		④ 釋迦如來像幡讚 并序		崔致遠 撰	
		⑤ 山中大德秩, 本寺秩, 功德刻秩, 緣化秩		미상	
		⑥ 後跋	1708년 8월	白蓮載肅 跋	

3	佛國寺 大雄殿 重創丹雘記		1767년 6월	活山病叟 書 (南龍萬)	* 편역 현존 『活山集』 권5 『朝鮮寺刹史料』上, pp. 418-419, 『佛國寺誌(外)』, pp. 93-99,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pp. 266-268.
4	佛國寺復役 功德記		1779년 가을	南景義 記 李祖洙 書	* 탁본 현존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5	佛國寺 紫霞門 重勅記		1781년 7월	南華泰猷 識	* 편역 현존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pp. 268-270.
6	大華嚴宗 佛國寺 古今歷代 諸賢繼創記	① 大通 2년(528)의 始基부터 嘉慶 10년(1805)의 毘盧殿 중수까지 편년체 기사	1805년 경	미상	『佛國寺誌(外)』, pp. 41-91 (②~⑥의 5편은 ①의 眞聖王 元年條에 삽입되어 있음). 『佛國寺 復元工事 報告書』, pp. 271-286(번역문).
		② 大華嚴宗佛國寺 毘盧遮那文殊普 賢像讚 并序	887년 정월	崔致遠 撰	
		③ 大華嚴宗佛國寺 阿彌陀佛像讚 并序	887년 정월	崔致遠 撰	
		④ 王妃金氏爲考繡 釋迦如來像幡讚 并序	886년 7월	崔致遠 撰	
		⑤ 結華嚴經社願文	882년	崔致遠 撰	
		⑥ 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 追福施穀願文	887년 11월	崔致遠 撰	

국립중앙박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석가탑 유물2-중수문서』, 시티파트너, 200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慶州市, 1976.

朝鮮總督府 內務部地方局, 『朝鮮寺刹史料』, 1911; 中央文化出版社, 『增補校正 朝鮮寺刹史料』上, 1968.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佛國寺誌(外)』(『韓國寺志叢書』 제11집), 1983.

투고일 2015. 9. 20 | 심사개시일 2015. 10. 21 | 게재 확정일 2015. 11. 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 자료

남동신

이 글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최근 발굴한 탁본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는 글이다. 이 자료는 ‘佛國寺重修記’(청구기호 枚4016 99)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는데,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扁額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의 유일한 탁본으로서, 조선 후기 불국사의 重創과 변모를 연구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우선 제 1장에서는 탁본의 서지사항과 도서관 입수 경위, 功德記의 찬자와 찬술 시기, 그리고 다른 扁額 자료와의 비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어서 제 2장에서는 향후 자료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판독문과 역주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 3장에서는 사료적 가치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私見을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불국사 관련 문자자료의 목록을 덧붙였다.

『佛國寺復役功德記』 탁본 자료는, 20세기 정부 차원에서 단행된 두 차례의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선행하여, 이미 18세기 중·후반에 불국사 승려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重創 佛事を 일으켰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 佛事に 경주 지역의 불교계는 물론 地方官 및 문인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이다.

주제어: 佛國寺, 佛國寺復役功德記, 南景羲, 贊弘, 李在簡

Rubbing of Bulguksa bokyeok gongdeokgi (1779)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am Dongsin *

This study seeks to introduce the rubbing that the author recently discovered in the Rare Books and Archival Collection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is reference material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Bulguksa Jungsugi (Records of the Restoration of Bulguksa Temple, call number: Mae 4016 99), and is the only rubbing of Bulguksa bokyeok gongdeokgi (Records of meritorious deeds in the restoration of Bulguksa Temple) in plaque form which had remained unknown until now. It is expected to make larg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Bulguksa Temple during the late-Joseon Dynasty.

Firstly, Chapter 1 examines the bibliographic data of the rubbing, details of the acquisition of the library, the compiler and compilation period of the records, and comparisons with the materials of other plaques. Secondly, Chapter 2 presents decipherments and translator's notes for the convenience of future studies and utilization of the records. Lastly, Chapter 3 contains the author's personal views in terms of historical value and research direction and adds a list of extant written materials related to Bulguksa Temple.

The rubbing of Bulguksa bokyeok gongdeokgi reveals that there had been big and small reconstructions of Bulguksa Temple that were carried out many times by the monks during the mid- to late-eighteenth century in prior to the two extensive restoration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In particular, the fact that not only the Buddhists of the Gyeongju region, but also local government-officers, literary men, and intellectual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se reconstructions of the temple is most interesting in the context of the societal changes in the rural communiti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Bulguksa Temple, Bulguksa bokyeok gongdeokgi (Records of meritorious deeds in the restoration of Bulguksa Temple), Nam Gyeong-hui, Chan Hong, Yi Jae-ga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